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출장기간 : 2019. 9. 30.(월)~ 10. 8.(수)/ 7박 9일

출 장 지 : 핀란드(헬싱키), 스웨덴(스톡홀름)

출 장 자 : 한상현 책임연구위원, 윤설민 연구위원

1. 출장목적

- 대전예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선진 사례 조사
- 대전시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선진지 사례 견학
- 예술인 처우 및 복지 개선에 관한 정책방안 청취와 현황자료 수집

해외의 예술인 복지 관련 제도는 프랑스·독일이 예술인에게 별도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 등 북유럽은 예술가의 복지 제도를 특별하게 제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잘 정비된 사회복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 등 영미권에서는 예술인 연금제도 등 부분적 복지 제도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기금 확보와 조합 설립의 가능성이 낮고 성과에 기반한 선택적 복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복지 제도와 예술인 복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임.

대전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창작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위와 같이 예술인 복지 정책의 선진지인 핀란드와 스웨덴의 정책 추진과 거버넌스 협력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 기관 방문을 통해 예술분야별 특성, 경력별 신구예술가의 차이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복지 정책 방안, 국비와 지방비, 민간 후원 등 재원 확보와 배분 방식 등을 살펴보고, 복지정책 수립방안의 예술분야별 차이, 세대별 차이 등에 따른 예술가들 간의 갈등 해결 경험, 다른 정책분야와는 구별되고 특화된 예술복지정책이 예술창작 활동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의 경험 사례 등을 청취할 계획으로 추진함.

2. 출장기간 : 2019. 9. 30.(목)~ 10. 8.(수)/ 7박 9일
3. 출 장 지 : 핀란드(헬싱키), 스웨덴(스톡홀름)
4. 출 장 자 : 한상헌 책임연구위원, 윤설민 연구위원

II

출장 일정

일정(한국시간)	도시	업무수행내용
9/30(월)	인천	• 인천 → 헬싱키 도착
10/1	헬싱키	• 핀란드 예술인 지원 기관 방문 - Art Promotion Center Finland • 아테네움, 헬싱키대학도서관 견학
10/2	헬싱키	• 문화예술교육학교 ANNANTALO 견학, 핀란드 문화교육부 탐방
10/3	헬싱키	• 문화에이전시 기관(Feduk) 방문 • 헬싱키시립도서관, 핀란드 왕립도서관 견학
10/4	헬싱키 스톡홀름	• 헬싱키 → 스톡홀름 이동 • 스톡홀름 시립미술관 견학
10/5	스톡홀름	• 한국연구재단 스웨덴사무소 방문 • 스웨덴 예술인 협회 방문 - Artists' National Organization
10/6	스톡홀름	• 옘살라 대학 방문
10/7~10/8	스톡홀름	• 스톡홀름 → 인천 이동

1. 문화예술인에 대한 체계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핀란드

1) 핀란드 예술 지원 대표 기관 방문 후 관계자 면담

○ 핀란드 예술지원센터(Arts Promotion Centre Finland)

- 국가 자금 지원, 예술의 지원 및 서비스 기관
- 교육문화부 산하 기관
- 2013년 설립
- Taike라고 통칭



○ Taike 조직

- Taike의 법률과 법령은 업무의 임무와 범위를 결정
- Taike는 두 개의 핵심 부분으로 나누어 설립
 - ⇒ 기금 조성 : 의회, 특히 개인 보조금을 배분하는 일을 위한 것으로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기본 과제에 해당
 - ⇒ 문화예술진흥 : 1970년대부터 지역 예술가 시스템에 기반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작
- 지역 아티스트들은 전문 예술 영역에 종사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일부 기금은 정부 부처를 통해 Taike로 주어져 조성됨

- 지원금 제도에서 기본소득(월급) 지원으로 전환 중
- 지역예술가에게 5년간 창작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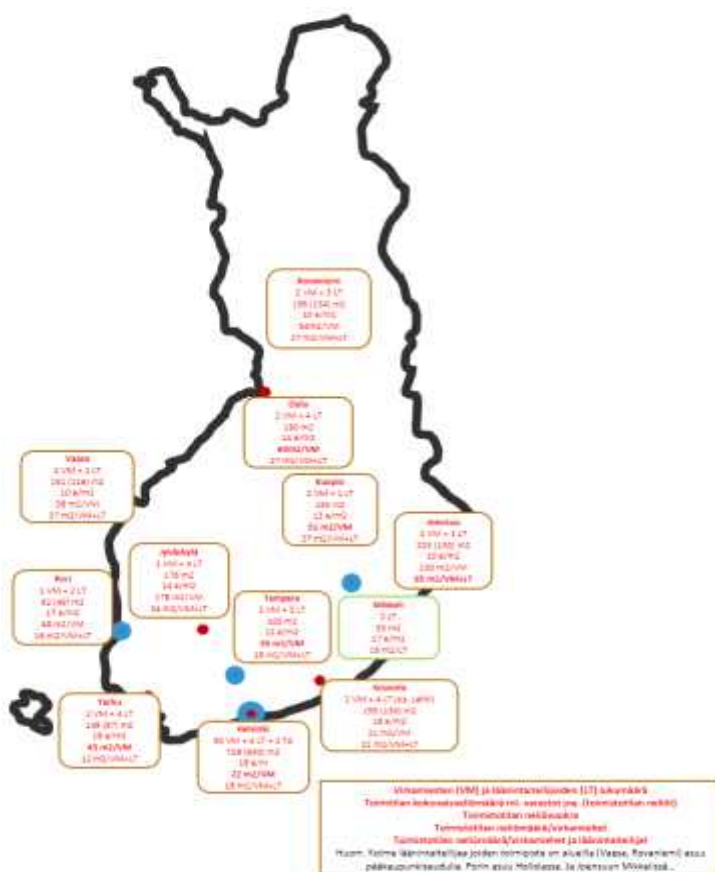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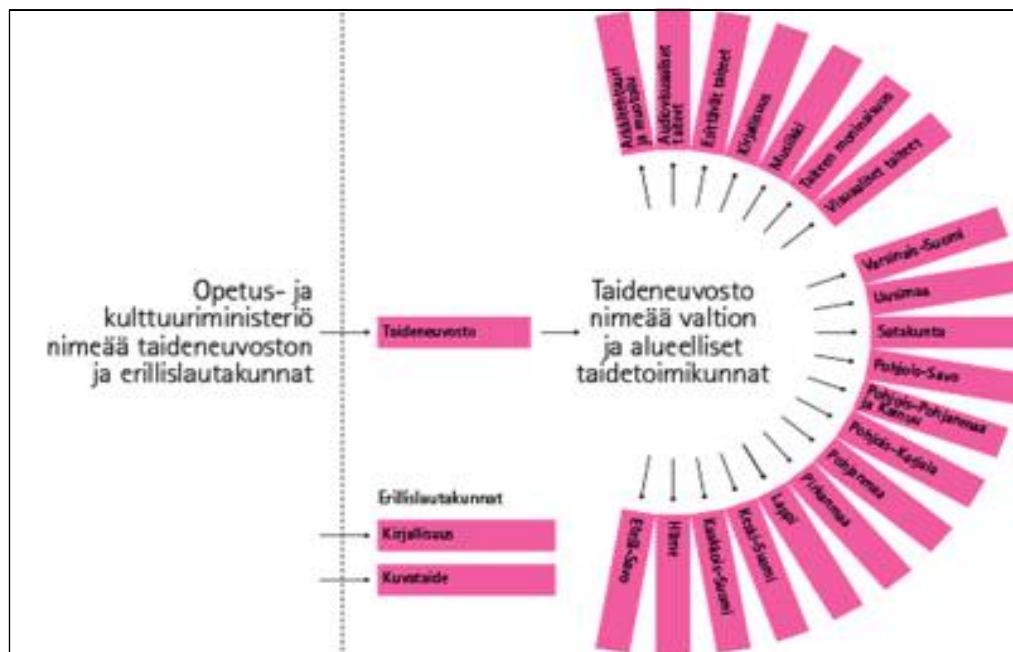
○ Taikē 조직(2019년 기준)

- 중앙예술의회와 함께 교육문화부에 자문역할을 수행
- 관리와 소통(Administration and communication)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해 전문가 집단 풀(The Expert Bodies)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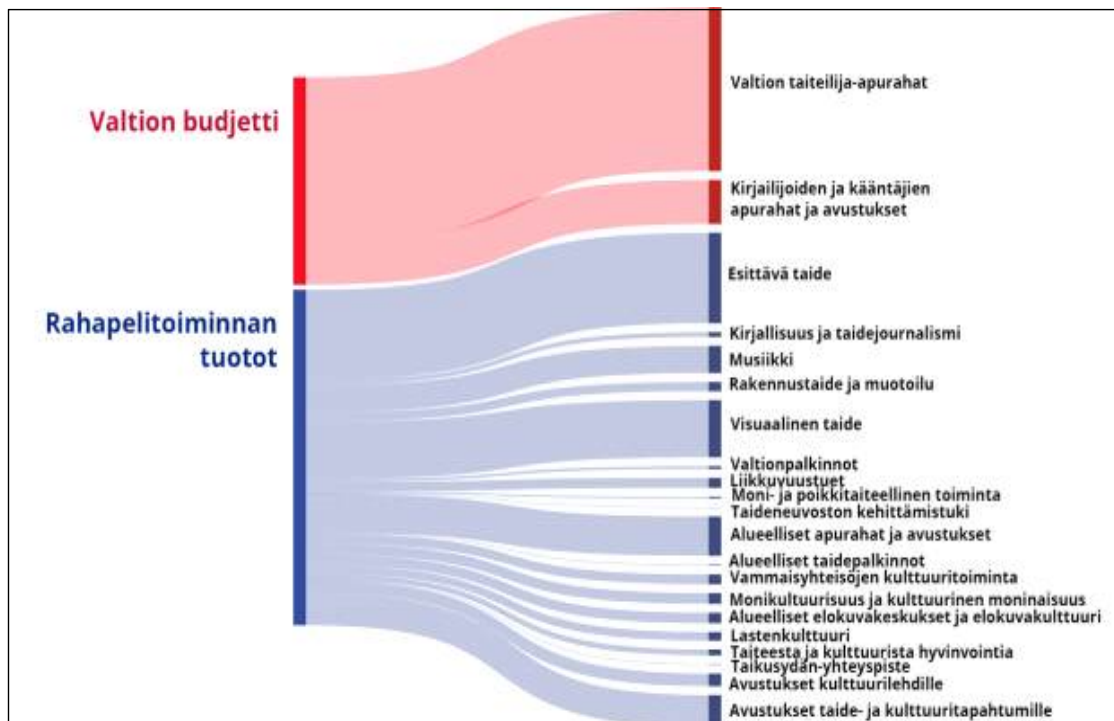
○ 전문 조직

- Taikē는 여전히 많은 수의 협의회와 위원회들을 두고 있음
- 정부 부처가 지명한 중앙 예술 위원회(Central Arts Board)가 존재
- 중앙 예술 위원회는 예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서 부처의 자문 기구 역할을 해야 함
- 다른 협의회와 위원회들은 보조금 신청을 평가하고 결정을 내림
- 전문기관은 개별 보조금 신청서를 평가하고 또한 결정을 내림



- 11개 지역 사무소는 특정 지역의 예술 발전과 관련이 크지는 않으며, Taike의 전문가들과 지역 아티스트들은 특정 주제 프로그램으로 핀란드 전역에서 일함

○ Taike로 유입되는 기금 및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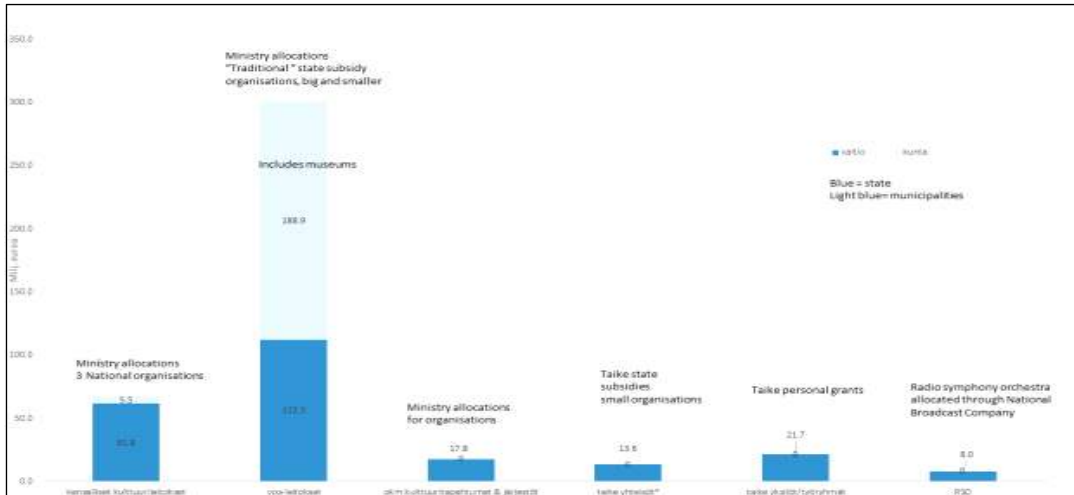
○ Taike의 과제

- 이전의 제도에 비해 Taike를 설립한 이후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금 조성 절차는 까다롭고 예전과 비교해 근본적 변화가 거의 없음
- 지역 예술가들은 예술가로 채용되긴 하지만 전문예술가로서 직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음
- 문화예술 기금과 관련된 자원들은 이미 해당 부처에 있는 Taike ear-marked에게 할당되어 있어 지역별 사업들이 예전에 비해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음

⇒ Taike 입장에서 볼 때 현대 예술 분야나 지역 문화예술에 대해 충분히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문화예술 지원 구조(주요 기능, 2017년 기준)



2) 문화예술교육센터 ANNANTALO 및 핀란드 문화교육부 방문 견학



○ 핀란드 중앙정부 문화교육부 견학



3) 헬싱키시립도서관, 헬싱키대학도서관, 왕립도서관 방문

- 문화예술 및 예술인 실태 아카이빙 자료 및 정보시스템 조사
 - 헬싱키대학도서관 내에서는 사회학 영역에 다양한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가 구비되어 있음



- 특히 헬싱키 시립도서관은 메이커스페이스와 연계해 생활문화예술 까지 활발히 추진 중



2. 스웨덴 스톡홀름

1) 한국연구재단 국제사무소 방문

○ 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대전 문화예술정책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



스웨덴 주재사무소 주요 역할

- 스웨덴협력기관과의 **협력사업** 운영과 교류활동 지원
- 북유럽국가의 과학기술/학술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파악**
- 과학기술포럼 및 연구자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네트워크** 강화
-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학술/과학기술분야 업무지원
- 국내 우수연구자 및 **연구성과**의 스웨덴 **홍보**(노벨과학상 기반조성)
- 북유럽 혁신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한-스웨덴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협력교류사업 추진 현황

구분	NRF-STINT	NRF-SSF	NRF-VR
사업명	한-스웨덴공동기공사업 (연구자 교류사업)	한-스웨덴 국제공동연구	한-스웨덴 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
소관부처	기관교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스웨덴기관	STINT(스웨덴고등교육 국제협력재단)	SSF(스웨덴전략연구재단)	VR(스웨덴연구협의회)
사업형태	인력교류	공동연구	공동연구
2019년 지원	신규 4과제 (계속과제: 10과제)	계속과제: 5과제	신규과제: 5과제
지원금액	3천만원/년	1억원/년	5~6천만원/년
지원기간	3년	3년	2년
대상분야	인문사회 및 이공학 전분야	Bio, 소재, ICT	연구기반 공동활용
비고	'19.4월 신규과제 (4과제) 연구 개시	2020년 후속사업 기획 협의	2018 NRF-VR R&D 네트워크 DBA 추진



2) 스톡홀름 시청사 견학

○ 스톡홀름시의회 사무소를 방문하여 의회의 구성과 기능, 역할에 관해 청취



3. 기타

1) 문화관광 통합안내 시스템 도입

○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브로슈어가 공항을 중심으로 비치되어 있으며, 아울러 관광 홈페이지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KIOSK가 곳곳에 잘 설치되어 있음



2) 공유공간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예술인 단체들 활동 활성화

○ 핀란드와 스웨덴은 모두 문화예술인의 예술지원사업 참가를 위한 사무공간을 공유공간 형태로 제공



3) 예술인복지를 포함해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도모

○ 핀란드와 스웨덴 지역 예술인의 작품들이 상설 기획 전시되어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되고 있음

- 스톡홀름현대미술관에서는 대학과 연계하여 특별기획으로 건축디자인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헬싱키시립미술관에서도 디자인 전시관을 특화해 운영



- 디자인이 발달한 핀란드의 경우 서점들마다 핀란드 디자이너들의 작품집을 체계적으로 비치하여 작품이해를 돕고, 작품 구매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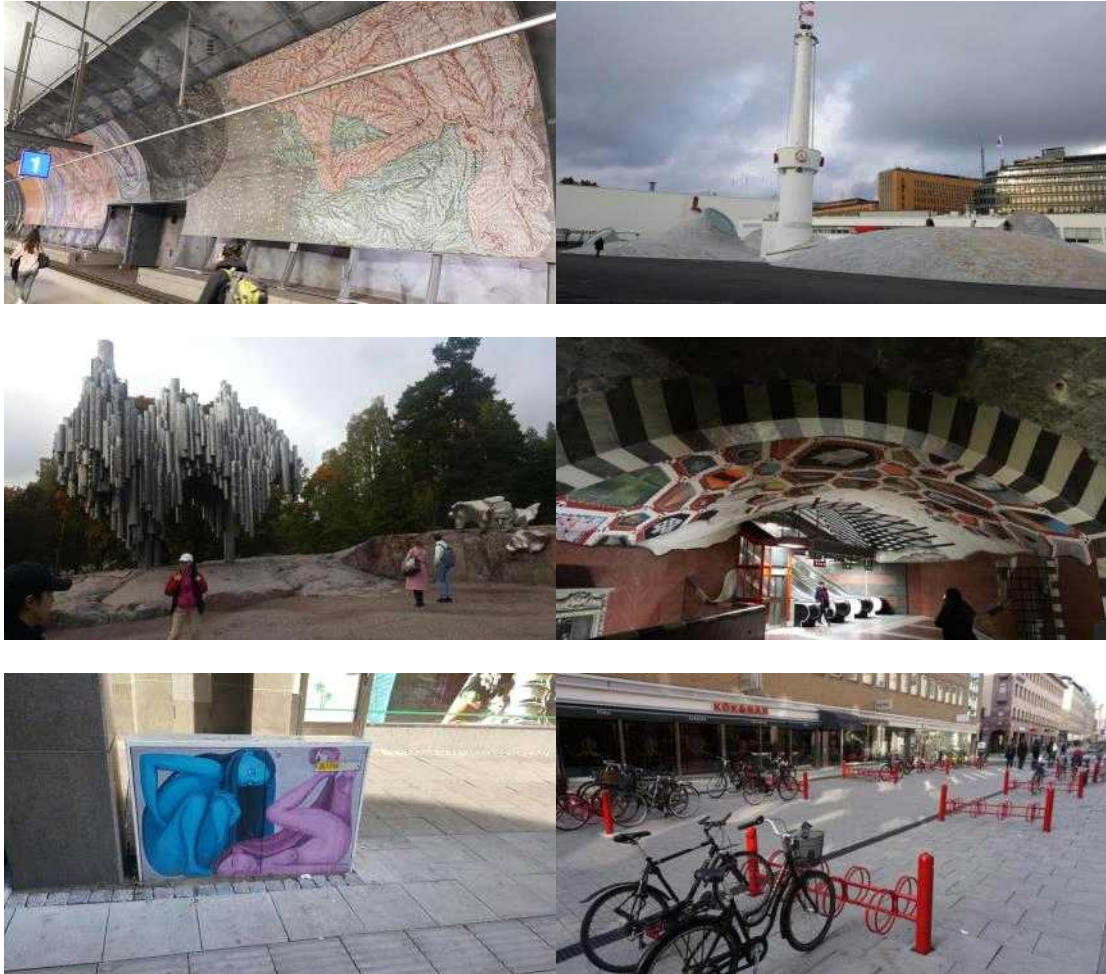
- 또한 디자인 디스트릭트를 조성하여 각종 생활용품 등 디자인 제품 전문숍들이 성황리에 운영 중으로, 결국 뮤지엄, 서점, 거리, 전문판매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예술생태계를 마련



○ 스웨덴의 사진박물관에서는 사진의 특성을 활용해 전시관람자가 간단한 맥주와 와인을 곁들이며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관람을 적극적.전략적으로 유도



○ 핀란드와 스웨덴 지역 곳곳에 지역 예술가의 퍼블릭아트 전시 및 설치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높이고, 지역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활성화하여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까지 도모



IV

출장성과(또는 기대효과)

- 예술인복지정책의 선진사례 견학과 자료 취합을 통해 대전 예술인복지정책의 정책을 풍부히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문화예술 관련 제반 정책에 예술생태계를 활성화 하고 문화기본권의 충분한 보장을 이뤄낸 선진사례의 비결을 적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술인실태조사와 예술인 복지정책 설계시 보다 고도화된 지표 설정과 안정적인 실행계획을 위한 기준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함

V

참고 자료

박조원 외(2013),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구보고서.

이영리(2012),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플랫폼 통권35호)